

##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제 3, 4차

# “어촌·어항이 정말 아름답군요”

“어촌 어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, 꼭 다시 찾고 싶습니다.” (전은미 - 4회 참가자)

“이번 체험은 글감을 찾는 우리 문인들에게 산 경험이 되었고, 앞으로 어촌·어항이 바탕이 된 글을 적극적으로 써나가 보겠습니다.” (문요치-국제펜클럽 회장)

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 종합 진흥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어항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가 참가자들로 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.

올해 총 8회가 실시될 계획된 이 행사는 최근 7월 28일에서 29일까지 강원도 삼척시 장오1리 어촌계에서 3차 행사, 국제 펜클럽 회원을 대상, 8월 6일에서 7일까지 전북 부안 도청어촌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.

### □ 3차 - 문인들이 찾은 장호마을



- 정자 위의 즉석 시낭송회

국제펜클럽회원 31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‘어촌체험마을’, ‘아름다운어촌 100선’에 선정된 강원도 삼척시 장호마을에서 열렸다.

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 도시인

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온 ‘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’ 행사는 이번엔 여분주도층인 국제펜클럽회원들을 참가시켜 시범관광(FAM Tour)형식으로 진행되었다.

참가자들은 어촌체험 프로그램인 바다 낚시체험 및 해상드라이브 체험을 즐겼고 저녁에 실시된 수산물 시식회에서는 어촌계장 등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즉석 시낭송회를 가졌다. 장호마을 강영



- 바다낚시 및 해상드라이브

구 어촌 계장은 “먼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, 또 이렇게 장호항과 장호마을을 잊구로 칭찬해 주시니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이 나고, 주민들에게도 활력소가 되는 것 같다”라고 말했다.

이튿날에는 어촌계 인근 어촌민속전시관 및 동해안 유일의 남근송배민속을 지닌 해신당공원을 관람했다. 이후 지역명물 곤드레나물밥으로 점심을 먹고, 허난설현·허균의 생가와 조선 사대부가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선교장을 관람했다.

### □ 4차 - 부안 갯벌 올림픽 참가



- 튜브 줄다리기

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인 전북 부안 도청리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부안군이 모항해수욕장(도청 어촌계 내 모항마을)에서 개최하는 신바람 갯벌올림픽과 연계하여 진행, 80명의 도시민들이 어촌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어업인

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.

첫째 날에는 부안댐 자연학습장,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세트장, 영상테마파크 등을 관람하고 갯벌체험안내센터에서 수산물 시식회를 가졌다.

이튿날은 참가자들은 갯벌 생태체험을 즐겼고 갯벌올림픽 행사에 참가하여 갯벌릴레이, 튜브줄다리기, 서바이벌깃발잡기, 갯벌기마전 등 갯벌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



- 서바이벌 깃발잡기

한국어항협회는 이날 행사의 관련 사진과 참가후기 등을 협회 사이트(www.fipa.or.kr)에 게재,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어촌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.